

배우 이정재 “관상때 전성기 줄 알았는데 인생 참...”

영화 ‘헌트’로 데뷔 30년만에 감독으로 ‘오겜’ 메가 히트 후 감독으로 또 흥런

배우 이정재(50)는 지난해 글로벌 스타가 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배우조합시상식에서 TV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크리스티스초이스시상식에서도 같은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아시아 국제 배우가 이들 시상식에서 후보에 오른 것도 상을 받은 것도 최초였다.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도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다음 달에 열리는 에미 시상식에서도 그는 또 남우주연상 후보다. 역시 아시아 국제 배우 최초다. 현지 언론은 “이정재가 수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정재는 오는 10월에는 영화감독으로 정식 데뷔한다. 그가 각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 ‘헌트’는 지난 5월 세계 최고 영화제인 칸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됐다. 최근 열린 국내 시상회에서 ‘헌트’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영화 각 요소를 하나씩 뜯어보면 호평 받은 것도 반대로 혹평 받은 대목도 있다. 하지만 이정재가 감독으로 데뷔한 어떤 배우보다 혹은 최근에 나온 어떤 신인감독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데뷔작을 내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4일 배우 겸 감독 이정재를 만났다. 그에게 “지금 전성기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잠시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듯 생각이 잠겼다. “인생이 참...”이라며 말을 흐렸다. 그러더니 “말로 잘 표현이 안 된다.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하다는 말 외엔 표현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선배님들 활동하는 거 보면서 제2의 전성기가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관상’(2013)으로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2의 전성기가 오는 건가 했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출

을 한 영화가 칸에도 갔고요.”

이정재는 전성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대신 자신의 철칙 두 가지를 관해 얘기했다.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동료가 되는 것. “연기 준비를 제대로 해오지 않는 배우와 누구도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과 일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면 역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제 두 가지 철칙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일하다 보면 더 큰 기회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온 “더 큰 기회”가 ‘헌트’였다. 2016년 그는 ‘헌트’의 원작 시나리오 ‘남산’의 판권을 샀다. 그리고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원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헌트’ 각본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그가 할 줄 아는 문서 업무라는 건 이메일 몇 줄 쓰는 게 전부였다. 그랬던 그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랩탑을 사서 들고 다니며 짬짬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워드라는 걸 처음 썼어요. 줄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몰랐죠.” 각본 작업에 4년이 걸렸다. 그 4년 간 그가 출연한 작품만 7개였다. 연기만 해도 바쁜 시간에 그는 시나리오를 조금씩 완성해갔다. “촬영장 오가면서, 또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에 썼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휴대폰 메모장에 수시로 적어놨다가 시나리오를 고쳤죠.” 그는 “시나리오가 안 풀릴 때가 많았다. 거의 매번 그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정재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동시에 그가 쓴 글을 영상으로 구현해줄 감독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는 각본을 쓰면서도 단 한 번도 연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전에도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고 했다. “연출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직접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고민이 안 됐겠어요. 정말 많이 고민하다 결정했어요. 굳이 연출까지 해서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있느냐 분들도 있었거든요. 긴 고민 끝에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직접 해야겠다고 나선 거죠.”

이정재는 이 기회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이런 태도는 이정재가 ‘헌트’로 벌려놓은 판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제작비만 약 230억원. 이 영화 투자-배급을 맡은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에서 기획한 영화 중 가장 큰 돈이 들어갔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보통 감독으로 데뷔하는 배우들은 제작비 규모를 적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물론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흥행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이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연출력 논란이 배우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정재는 움츠러드는 대신 ‘악셀’을 밟았다. 이정재는 이걸 두고 “30년 간 이 바닥에서 일한 노하우”라고 했다.

“관객이 좋아하려면 서스펜스뿐만 아니라 풍성한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제작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제작비 대비 더 큰 효과를 보여주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연기 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극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관객이 이 영화를 더 좋아하게 만들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이 있었죠.”

이번 영화는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마도 관객이 더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정재와 정우성을 한 영화에서 본다는 것 자체일 것이다. 두 사람은 23년 전인 1999년 ‘태양은 없다’에 함께 출연했다. 두 사람 모두 이십대 한창 때였다. 이 영화는 ‘비트’(1997)와 함께 청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한국영화로 아직까지 회자된다. 정우성은 이 영화로 청춘의 아이콘이 됐고, 이정재는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한국영화계 최고 듀오가 된 두 사람이 이제는 50대 완숙한 배우가 돼 ‘헌트’에서 다시 만났다.

이정재는 “태양은 없다” 이후 10년 안에 한 작품 정도는 더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못했다. 이후에도 한 두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역시 작품을 같이 한다는 건 운명같은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3년만에 한 영화에 출연한 한을 풀듯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종 TV 예능은 물론이고 두 사람에게겐 생소할 유튜브 예능에도 나섰다. VIP 시사회에선 직접 포토존에 나가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최근 개봉한 어떤 영화도 하지 않은 행보로 적극 홍보에 나선 것이다. “저희가 새로운 걸 리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운 걸 따라가려고는 해요. 다르게 해보려고도 하고요. 이번 홍보도 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는 정우성에 대해 얘기했다.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홍보를 시도하는 데 제 혼자만 나서면 잘 안 됐을 거예요. 재미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상대도 저랑 똑같이 노력해준다는 거죠. 거기서 전 어떤 동질감 같은 걸 느껴요.”

벌써 감독 이정재의 차기작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정재는 “당분간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발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은 연기를 더 하고 싶어요. 더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작품을 의뢰받아서 하는 연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긴다면 그때는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꿈만 같았던 하루”...팽수, 첫 팬미팅 성료



EBS 연습생 팽수가 생애 첫 팬미팅을 성료

했다.

7일 EBS에 따르면, 팽수가 전날 오후 1시와 7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연 첫 팬미팅 ‘팔월애(愛)’에 팬 3000여명이 운집했다.

약 90분간 진행된 이번 팬미팅은 퀴즈를 통해 선물을 증정했고, 기념사진 촬영은 물론 애장품도 전달했다.

EBS는 “깜짝 게스트로 출연한 타이거 JK와 노브레인의 지원 사격으로 ‘팬미팅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거운 한 여름의 축제 같았다”고 귀띔했다.

팽수는 “꿈만 같았던 하루, 꿈이여도 좋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세리·강남, ‘오늘부터잇생’ MC 출격

전 골프선수 박세리와 가수 강남이 디지털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한 (IT)생을 전한다.

오는 10월 오후 8시 50분 첫 방송되는 JTBC 예능물 ‘오늘부터잇생’(IT)생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급격히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첨단 문명이 낯선 ‘디알못(디지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리한 IT 생활을 응원, 함께 적응해 가는 프로그램이다.

박세리는 “스스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날로그 위주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걸 알아가며 일상의 편리함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강남 역시 “평소에 전자기기 사용법이나 인터넷 사용법을 몰라서 도움을 받고 있는 편이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게 디지털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박세리와 강남은 멤버들과의 팀워크를 각각 “10점 만점에 3점”, “10점 만점에 1점”이라고 폄했다. 박세리는 “막상 촬영을 해보니



모두가 비슷한 수준이라 재밌다. 우리는 아직 같이 멀다”고 말했다. 강남은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새로운 걸 배울 때 많이 헤매기도 한다. 조금씩 같이 배워가다 보면 팀워크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할머니가 돼서도 기억할 것”...WSG워너비 4개월 여정 마침표

피날레 콘서트 시청률 5.5%

MBC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여성 보컬 그룹 ‘WSG워너비’가 4개월 여정 마침표를 찍었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놀면 뭐하니?’ 시청률은 전국 기준 5.5%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윤은혜, 나비, 이보람, 코타, 박진주, 조현아, 솔(SOLE), 소연, 엄지윤, 권진아, 박혜원(HYNN·훤), 정지소가 WSG워너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콘서트가 펼쳐졌다.

최고의 1분은 윤은혜·이보람·나비의 ‘언니즈’ 유닛 무대로, 분당 최고 시청률이 6.9%까지 치솟았다고 MBC는 전했다.

또 WSG워너비 결성에 발판을 마련해준 프로젝트 남성 보컬그룹 ‘MSG워너비’가 게스트로 힘을 신기도 했다.

특히 유닛 무대 이후 WSG워너비의 단체곡 ‘눈을 감으면’ 무대가 처음 공개됐다. 12명 멤버들의 친필 가사가 무대 뒤로 펼쳐졌고, 멤버들은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윤은혜는 끝내 마지막 소절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노래가 모두 끝난 후 멤버들은 잠이든 울음을 터뜨렸다.

엄지윤은 “안 울기로 약속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워서”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박진주는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이 시간을 기억할 것 같다. 아이돌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했다. 정지소는 “이번에 언니들 만나서 행복했고, 오늘 관객분들 중 제 이름을 들은 게신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평평 울었다.

이보람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저의 기적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웃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윤은혜는 “제가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서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무언가를 도전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선물을 얻었다”고 고마워했다.

앞서 WSG워너비 유닛 음원들은 발매 즉시 주요 음원차트를 휩쓸며 인기를 누렸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멜론 톱100 차트 기준 가이G



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그그그)가 1위를 질주하고 있다. 4FIRE의 ‘보고싶었어’가 2위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3주년을 맞아 재정비 및 멤버 충원을 위한 3주간 휴식을 갖는다. 3주간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된다.

오는 9월3일 새로운 프로젝트로 돌아올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보컬라인·블랑코 협업곡, 스포티파이 ‘일간 톱송’ 7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보컬라인 진·지민·뷔·정국이 브리질계 미국 프로

듀서 베니 블랑코(Benny Blanco), 미국 힙합스타 스눕독(Snoop Dogg)과 함께 한 신곡 ‘배드 디시전스(Bad Decisions)’가 글로벌 음악 차트 최상위권에 올랐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최신 차트(5일 차)에 따르면, ‘배드 디시전스’는 공개 첫 날 415만 7585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진입과 동시에 7위를 차지했다.

앞서 ‘배드 디시전스’는 세계 74개 국가/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6일 오전 7시까지 기준)를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배드 디시전스’는 블랑코가 올해 발매 예정인 정규 앨범의 선공개 곡이다. 경쾌한 비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댄스곡이다.

뮤직비디오엔 블랑코와 스눕독이 출연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ARMY)로 등장한 블랑코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콘서트 날짜를 착각한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그렸다. 초반에 블랑코가 자신의 방에 붙어 있는 방탄소년단 사진을 향해 ‘K-하트’로 통하는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 등의 장면이 주목 받았다.